

영광군, 2025년 스포츠대회 마무리, 스포츠 도시 면모 입증

## 31개 대회 개최로 12만여 명 방문, 지역경제에 '훈풍'

영광군이 지난 12월 6일 천년의 빛 영광 테니스대회를 끝으로 2025년 각종 스포츠대회를 동·하계 전지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한 해 동안 총 31개 대회(전국단위 10, 도 단위 7, 군 단위 2, 전지훈련 12)를 개최하며 지난해 방문객 10만여 명에 비해 20% 증가한 12만여 명의 선수단 및 방문객을 유치해 약 127억 원 추산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달성하는 쾌거를 보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춤했던 스포츠대회가 15년 만에 열린 제63회 전남체전을 기점으로 군 스포츠산업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다. 2025년도는 스포츠와 함께, 지역경제 균형발전이라는 전략목표로 굴뚝 없는 신성장산업인 스포츠마케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날개를 달았다.

올해도 31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대회 열기는 '후끈' 달아 올랐으며, 지역경제에는 '훈풍'으로 다가와 군 스포츠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기존 대회와 새로운 대회를 적절히 배분하는 효율적인 스포츠대회 개최

이전부터 개최했던 전국 중고농구대회, 전국 중농농구대회, 현정화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등 주요 전국대회와 더불어 전국 대학태권도대회, 전국 생활복싱대회 등 새롭게 유치된 다양한 종목대회가 어우러져 총 7개 종목, 10개 전국단위 스포츠대회가 연중 고루 분산되어 개최됐다.

이로 인해 8만 2천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82억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었으며, 신규대회 유치는 외부방문객 수가 많은 대회를 우선함과 동시에 대회 권위, 주민의 불거리 충족 여부와 지역 출신 체육선수의 기량 향상 등 다양한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선정했다.

▲ 관내 체육인의 기량 향상 도모와 동호활동, 체육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대회 개최

군에서는 2025 영광 범성포 단오제 씨



름대회 및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전라남도 대표선수 선발대회, 천년의 빛 영광 배드민턴·파크골프·게이트볼·테니스 대회 등 6개 종목, 7개 전라남도 단위 대회를 개최하여 각 시군과의 체육교류를 확대해 나갔다.

이에 관내 체육인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실력상승을 이뤘으며, 7천여 명의 선수단의 방문으로 7억여 원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달성했다.

또한, 관내 22개 종목 동호인이 참여한 제28회 영광군 생활체육한마당과 체조협회 소속이었던 생활체조댄스페스티벌을 최초로 개최 지원함으로써 체육을 즐기는 주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강화했다.

▲ 겨울철 관광 비수기를 활용한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살피우는 '스토브리그' 개최

'전라남도 평가 3년 연속 기관표창 수상'

각종 메이저 대회가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봄·가을을 제외한 동·하계 대회 비수기에 영광스포티움 체육시설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동·하계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했다. 올해에는 축구·테니스·검도·농구·탁구·배드민턴 등 6개 종목에 걸쳐 총 12

개 스토브리그를 개최함으로써 약 2만 9천여 명의 선수단의 군 체류를 유도해 총 29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했다.

특히, 배드민턴 국가대표 상비군의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참가 선수단의 호평을 받아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함과 동시에 협력관계를 약속하는 등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영광군은 전라남도 전지훈련 유치실적 평가에서 22개 시·군 중 장려상을 수상하여 3년 연속 기관표창 수상을 이어나가는 등 값진 성과를 이뤘다.

▲ 2년에 걸친 전라남도 5대 체전의 성공적 개최로 스포츠 선도시 위상 강화

지난해 15년 만에 개최된 제6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필두로 올해에는 제37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총 5개 전라남도 체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도내 스포츠산업 임지를 다지고 영광군의 스포츠 산업도시 경쟁력을 입증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참가했던 각종 스포츠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전라남도 체육대회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2위를 거두었

고, 아울러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종합 3위와 26명의 다관왕을 배출해 영광군 체육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군에서는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한 경기장 관리와 관람 환경개선, 참가자 편의시설 지원 등을 강화했으며, 지역 내 스포츠 시설 활용 극대화를 위해 대회기간 동안 숙박 및 관광, 지역상권 연계도 적극 추진해 '스포츠 선도시 영광'의 위상을 보여 주기도 했다.

▲ 2026년에도 심 없이 달릴 스포츠마케팅, 올해 12월부터 이미 예열 시작

2025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영광군 스포츠마케팅은 2026년에도 심 없이 달릴 계획이다. 올해 12월 중순부터 전국 고등부 동계 축구스토브리그를 시작으로 테니스·검도·농구·탁구 등 동계 전지훈련 선수단이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스포티움 경기장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

또한, 2월부터는 전국 생활복싱대회, 3월 현정화배 전국 오픈탁구대회에 이어 4월 전국 중고농구대회, 전국 대학태권도대회 등 굵직한 대회들이 연이어 개최될 계획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 영암군, 세계 바둑 메카 '국제 바둑연수원' 건립한다

정부 예산에 관련 사업비 반영... 국·도비 258억 확보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국·도비 258억원을 확보, 세계 바둑 메카로 자리매김할 '국제 바둑연수원'을 건립한다.

2일 국회가 의결한 2026년도 정부 본예산에는, 국제 바둑연수원을 포함한 1,339억원 규모의 영암군의 5개 핵심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380억원이 투입되는 국제 바둑연수원이 영암군에 들어선다.

특히,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공약으로 바둑을 매개로 한 영암 핵심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 정부 예산에는 국제 바둑연수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됐다.

영암군은 이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연면적 11,000㎡ 규모로 세계 수준의 바둑 복합 연수시설을 조성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바둑교육원, 국제대국실, 인제교육관, 바둑기념관 등을 갖춘 스포츠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육·체험·관광을 연계한 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과 시뮬레이션 훈련시설, 데이터 기반 연구

환경 등 4차 산업 맞춤형 바둑 훈련 체계를 구축해, 차세대 바둑 인재 육성 및 국제 교류의 중심지로 키워간다는 방침이다.

국제 바둑연수원 건립사업에는 100실의 숙박시설, 다목적 경기장 등 체류형 인프라도 포함돼 국내·외 바둑 관련 행사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담당하게 된다.

영암군은 국제 바둑연수원 건립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그 당위성과 지역성, 전략성, 경제성 등을 꾸준히 설명해 왔다.

영암이 세계 바둑의 전설 조현현 국수의 고향이자 '국수산맥 세계 프로 최강전' 개최지라는 상징성과 정통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월출산국립공원, 영산강, 왕인박사유적지 등 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바둑 관광 콘텐츠 확장 가능성도 제시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국제 바둑연수원 국·도비 확보로 영암이 조현현 국수를 배출한 한국 바둑의 분향을 넘어 글로벌 인재가 모이는 세계 바둑 허브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도보 학세권	일상을 놓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양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형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키비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영 운영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세영 GS건설
(69)한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 북중미서 '첫 월드컵 한일전' 열릴까... 토너먼트 맞대결 가능성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일전이 펼쳐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가위바위보도 저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과 일본이 맞대결은 자존심 싸움이다.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축구 대표팀의 경우, 그 중요도가 배가 된다. 축구 축제 월드컵에서 성사된다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가 집중할 라이벌 매치가 될 것이다.

한일전이 메이저대회에서 펼쳐진 건 지난 2011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이 마지막이다.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에서 양 팀이 만난 적은 있으나, 해외파들을 제외한 자국 리그들로 구성된 팀으로 경기하는 만큼 메이저대회로 평가받진 못한다.

한국은 2011 카타르 아시안컵 당시 연장전까지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해 승부차기까지 갔지만, 패배한 바 있다. 라이벌이지만 서로를 향한 존중도 이어오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다.

지난 7월 일본 매체 '교도통신'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으로 흥망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과 모리야스 일본 감독의 대담을 진행했다. 당시 모리야스 감독은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싸워가고 있다. 망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 경기 한 경기 해가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다"며 "2002 한일 월드컵 때 한국이 4강에 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일본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깊어졌다. (연제가) 한국과 결승 무대에서 붙는다면 정말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감독도 "난 그동안 한국 대표팀이 가보지 않은 곳에 지향점을 두고 있

한국 A조에서 멕시코·남아공·유럽 PO팀과 경쟁  
일본은 F조에 속해 네덜란드·튀니지·유럽 PO팀  
한국이 조 1위·일본 조 3위 시 32강서 만날수도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추첨식이 끝난 후 각 조 편성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 한국은 멕시코(15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61위), 유럽 PO 패스D 승자와 A조에 편성됐다. 한국은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게 됐다. /뉴시스

다. 지금 16강에 진출하는 건 우리의 기본선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남은 기간 팀을 조직적으로, 멘탈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게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모리야스 감독이 말한 것처럼 한일 두 팀이 월드컵 결승에서 만나는 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11회 연속 월드컵에, 일본은 8회 연속으로 본선 무대를 밟았다.

지난 6일 진행된 2026 북중미 월드컵 추첨식 결과, 양 사령탑의 바람대로 한국과 일본이 결승에서 만나는 건 물론 32강 토너먼트에서부터 격돌할 가

능성이 생겼다. A조에 자리한 흥망보호는 개최국 멕시코를 비롯해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유럽 플레이오프(PO) 패스D 승자와 조별리그를 치른다.

유럽 PO 패스D 승자는 '체코(44위)-아일랜드(59위)' 승자 vs '덴마크(21위)-북마케도니아(65위)' 승자가 경쟁하는 유럽 PO에서 결정된다.

일본은 네덜란드, 유럽 PO 패스B(우크라이나-스웨덴 vs 폴란드-알바니아) 승자, 튀니지와 F조에 묶였다.

한국이 조 1위를 달성하고, 일본이 조 3위로 토너먼트에 올라서면 32강에서 만날 수도. /뉴시스